

교육대학교 학생문화의 이상과 현실*

- 제주교육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김 민 호**

〈 목 차 〉

- I. 서 언
- II. 이상적인 교대생 문화
- III. 교대생 문화의 현실
- IV. 교대생 문화의 문제점과 지도방향
- * 참고문헌

I. 서 언

교육대학교는 대학 일반의 보편성과 함께 초등교사 양성이라는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육대학교 구성원들은 연구, 교육, 사회봉사라는 대학의 일반적 기능 이외에 훌륭한 초등교사 양성이라는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교육대학 학생들에게 대학생 일반으로서, 그리고 초등교사 양성기관의 학생으로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역할을 책임감있게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대학교 학생들 모두가 애초부터 이러한 일반적 기대를 잘 알고, 또 그것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입학한 것은 아니다. 1997학년도

* 이 글은 1997년 7월 31일, '97년 하계 전국교육대학교 학생처·과장 협의회(장소 : 부산교대)에서 「교대생 문화의 현실과 지도방향-제주교육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제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제주교대 신입생의 경우, 아래 <표 1>과 같이 대학생생활에서 가장 경험하고 싶은 것으로 49.5%가 친구사귀기를, 30.6%가 취미교양이나 서클활동을 꼽고 있다. 학문탐구라고 응답한 신입생은 15.3%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학문탐구보다는 사교나 개인의 취미교양 생활이라는 다분히 현실적 삶의 비중이 높아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공식적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수업을 충실히 이수하기를 기대하는 학교 당국의 기대에는 못미치게 된다.

<표 1> 최근 5년간 제주교육대학교 신입생들의 대학생생활에 대한 기대 (%)

기대 연도	학문탐구	이성교제	신뢰할 수 있는 친구교제	서클활동	취미교양 생활	기타	무응답	계
97	17 (15.3)	22 (19.8)	33 (29.7)	12 (10.8)	22 (19.8)	1 (0.9)	4 (3.6)	111
96	20 (17.1)	17 (14.5)	29 (24.8)	8 (6.8)	42 (35.9)	-	1 (0.9)	117 (100.)
95	24 (26.4)	10 (11.0)	22 (24.2)	8 (8.8)	22 (24.2)	1 (1.1)	4 (4.4)	91 (100.0)
94	28 (18.2)	62 (40.3)	26 (16.9)	6 (3.9)	29 (18.8)	3 (1.9)	-	154* (100.0)
93	43 (27.2)	15 (9.5)	39 (24.7)	26 (16.5)	19 (12.0)	2 (1.3)	14 (8.9)	158** (100.0)

* 120명이 복수 응답

** 79명이 두 가지씩 응답

출처 : 제주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 생활실태, 제주교육대학교연보 1993-1997 참조.

제주교육대학교에 대한 신입생들의 인식의 현실성은 대학 지원동기에도 잘 나타나 있다. 1997학년도에의 경우, 아래 <표 2>와 같이 14.4%의 신입생들만이 교육적 사명감을 갖고 교육대학에 지원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의 지원동기는 교육대학교의 이상적 목적과 일치한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주위 사람들, 특히 부모의 권유와 자신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신의 욕구와 희망을 접어둔 채 제주교육대학교에 지원했다. 게다가 교육대학교의 목적을 잘 알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각오로 입학했지만, 막상 학교생활을 하다보니 실망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신입생들은 대학 입학 후 자신의 진로와 적성 문제로 거의 일년간, 길게는 2, 3학년 때까지 고민과 좌절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학생들의 처지에 알맞게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단지 대학의 보편성과 교육대학교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당위론적 처방만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올바른 초등교사 양성을 위해, 오늘날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현실적 문화가 대학이나 교육대학의 전통적 이상문화로부터 과연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 괴리될 수 밖에 없는 까닭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괴리현상 중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거부할 것인지 등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오늘의 교대생 문화 현실을 바탕으로 학생지도의 적합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자가 제주교육대학교 학생처장이자 교육학 교수라는 신분상의 잇점을 십분 활용하여 교육법, 제주교육대학교 학칙 등의 문서 자료와 학생회 활동에 관한 참여관찰, 일반 학생 대상의 설문 조사, 문화기술지적 면접 그리고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 등을 분석하여 제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의 문화 현실이 학교가 기대하는 이상적 문화에 얼마만큼 동떨어져 있는지를 살피고,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표 2〉 최근 5년간 제주교육대학교 신입생의 지원 동기 (%)

연도	교육 사명감	취직 전망	실력 수준	가정 경제	부모 권유	친구, 선배 권유	선생님 권유	기타	무응답	계
97	16 (14.4)	21 (18.9)	7 (6.3)	5 (4.5)	49 (44.1)	-	2 (1.8)	7 (6.3)	4 (3.6)	111 (100.0)
96	12 (10.3)	38 (32.5)	7 (6.0)	5 (4.3)	41 (35.0)	2 (1.7)	9 (7.7)	3 (2.6)	-	117 (100.1)
95	6 (6.6)	15 (16.5)	10 (11.0)	5 (5.5)	39 (42.9)	1 (1.1)	5 (5.5)	5 (5.5)	5 (5.5)	91 (100.1)
94	28 (23.3)	17 (14.2)	7 (5.9)	11 (9.1)	40 (33.3)	1 (0.8)	8 (6.7)	8 (6.7)	-	120 (100.0)
93	13 (16.5)	21 (26.6)	4 (5.1)	항목 없음	32 (40.5)	4 (5.1)	5 (6.3)	-	-	79 (100.1)

출처 : 제주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 생활실태. 제주교육대학교연보 1993-1997 참조.

Ⅱ. 이상적인 교대생 문화

교육대학교의 학생문화는 '공식적, 이상적인 측면'과 '비공식적, 현실적인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교육대학교의 학생문화의 '공식적, 이상적인 측면'이란 교육대학교의 공식적 목적 달성하기 위해 애쓰는 학생들의 규범적 행동양식을 가리키고, 교육대학교 학생문화의 '비공식적, 현실적인 측면'이란 학교의 공식적 목적보다는 그 목적,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학생들 개개인의 지각과 해석을 통해 공유된 어떤 생활방식을 가리킨다(박용헌, 1992 참조). 공유의 정도에 따라 비공식적인 학생문화의 범주가 넓거나 좁아질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는 전자를 '이상적인 교대생 문화'로, 후자를 '교대생 문화의 현실'로 부르려고 한다.

우리 제주교육대학교는 교육법 제118조에 명시된 것처럼 "초등학교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목적대학이다. 또한 우리 대학은 교육법 제109조, 제108조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대학 일반으로서의 지위와 목적도 함께 지닌다. 다시말해 우리 대학은 초등교원 양성이라는 특수성과 더불어 대학 일반의 보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학칙 제1조(목적)에 "제주교육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고 아울러 사표로서의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여 유능한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하였다.

언뜻 보기에 우리 대학의 목적은 대학의 일반 목적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사표로서의' '유능한 초등교사 양성'이라는 어구를 첨가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그러나 이 어구는 우리 대학의 목적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반 대학이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위하고 정치한 응용방법' 그 자체를 연구하고 교수한다면, 초등교사 양성대학인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 초등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위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초등학교 수준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연구하고 교수하고자 한다. 또 일반 대학이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익힌 지도자 양성'으로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초등교사 양성대학인 우리 대학은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초등학교 수준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익힌 초등교사 양성을 통해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자 하는 것이다.

요컨대, 일반 대학이 진리를 탐구하고 교수하며 이를 통해 사회에 봉사하려는 목적 아래 대학문화를 형성했다면, 우리 제주교육대학교는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탐구하고 교수하며 이를 통해 사회에 봉사한다는 목적 아래 교육대학교 문화를 형성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주교육대학교의 '이상적인 교대생 문화'는 학생들이 다음 세 가지 구성요소를 만족시킬 때 나타날 수 있다.

첫째, 제주교대생들은 대학문화의 전통을 향유하는 지성인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학문의 연구와 교육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학자와 학생들의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현실적 가치 추구에서 벗어나 이성과 자율을 바탕으로 인간, 사회, 자연 및 초자연의 세계 등을 탐구·교육하고 기존의 문화를 극복하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제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은 대학교육을 받는 지성인으로서 현실적 가치를 추구하기 보다는 이성과 자율을 바탕으로 다양한 삶의 세계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학습하며, 나아가 이 바탕 위에 새로운 인류 문화를 창조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주교대생들은 훌륭한 초등교사로서의 준비를 착실히 하는 예비교사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진·선·미·성 등 다양한 삶의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만이 아니라, 이들 다양한 삶의 세계 중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적 삶, 특히 초등학생과 맺는 교육적 삶을 자신의 삶으로 선택하고, 이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자세 등을 준비할 것을 기대한다(장상호, 1994 참조). 따라서 제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은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적 삶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함께 실천적 체험을 함으로써 초등교사로서의 자세를 구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초등교사로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의 학습활동을 게을리 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제주교대생들은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구성원으로서 학생 자치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 등 우리의 삶 곳곳에 편재하고 있다. 학교만을 놓고 보더라도 교육은 교과교육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교과외 교육 영역에서도 전개된다. 학생 자치활동은 학생들이 스스로 조직, 운영하는 교과외 교육의 한 양식이다. 즉 학생들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종의 교육활동이다. 대학생들은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및 대학언론 활동 등을 통해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화에 오랜 전통으로 자리잡아 배울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배우고 가르친다. 그리하여 교대생들은 자치활동을 통해 인류문화의 다양한 전통을 습득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소양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Ⅲ. 교대생 문화의 현실

앞서 말했듯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대생들은 대학, 교육대학교 및 학생 자치활동의 이상에 적합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사회 현실 속에서 대학생활에 대한 각자 나름의 지각과 해석을 바탕으로 대학, 교육대학교 및 학생 자치활동의 이상과는 괴리된 삶을 살고 있다(박남기, 1997 참조). 이하에서는 제주교대생을 중심으로 교대생 문화의 현실을 검토할 것이다.

교대생 문화의 현실은 대학이 공식적으로 주관·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학생 자치조직(학회·동아리·학생회·학생자치 언론매체 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각종 자치활동 프로그램 및 학생 개개인의 삶의 영역 등 크게 세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대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공식성이 강하고 학생은 타율적이게 되며, 학생 개개인의 선택에 관한 영역은 대부분 비공식적이며 보다 자율적이다.

1.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

제주교대생들은 대학이 주도하는 초등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각·해석하고 있으며, 또 이에 대해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지를, 1997년 6월 초 제주교대 2, 3, 4학년 대상의 자유응답식의 설문조사 결과 및 4학년 〈교육사회학〉 보고서를 근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1) 교육과정 전체에 대하여

제주교대생들은 교육과정 전체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였다. 첫째는 수업 부담이 너무 크므로 학점 수, 시간 수를 줄여주길 기대했고, 1) 둘째는 수업 내용이 충실치 못하므로 보다 충실하고 현장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요구했으며 2), 세째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과 함께 누가 강의를 담당할 것인지를 미리 알고 수강신청하며, 아울러 학생 개개인에게 시간표를 짤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 주길 바랐다. 3)

2) 교양 과목에 대하여

교양과목에 대해서는 “일부과목은 고등학교 때의 반복이다. 형식적이고 시간 때우기식이 수업이 있다. 불필요한 과목이 많다.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 1, 2학년에 집중되어 있다.” 등의 불만과 함께, “다양한 과목·시대의 변화에 맞는 과목·보다 각론적인 과목·실생활에 유용한 과목의 설강, 교양과목을 교육학 과목 및 초

1) 학생들이 보인 구체적인 불만과 요구사항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불만 사항으로는 “수업의 부담이 너무 크다. 고등학교 같은 느낌이다. 특히 1, 3학년의 수업부담이 크다. 학점 수가 너무 많다. 학점 수에 비해 시간 수가 너무 많다. 교과목 수가 많아 이것 저것 다 배우느라 너무 바쁘다. 학원교육(서예, 수영, 그림, 피아노 등 예체능 과목)으로 학교생활이 쫓기고 있다. 과목당 보고서가 너무 많다. 너무 빡빡해서 보고서 하나라도 깊이 사고하지 못한 채 제출한다. 자기개발의 기회가 없다” 등이고, 다음에, 요구사항으로는 “전체 학점 수, 시간 수를 줄였으면 한다. 학년, 학기별 균형을 맞추었으면 한다. 학교에서 실비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면 좋겠다” 등이었다.

2) 수업의 충실도에 관한 불만 사항으로는 “수박 겉 핥기식 교육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과목의 학년별 연계성이 부족하다. 많은 것을 배우는 반면에 체계적이지 못하다. 강좌명과 판이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다” 등이며,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현장교사와의 대화 같은 실제적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한다. 기존 교육과정 운영부터 충실했으면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3) 불만사항으로 “학생 의견의 반영이 미흡하다. 강사 선정에 신중치 않다. 선택한 교수가 아니라 지정된 교수의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고, “수강신청 당시 특히 선택 과목의 경우, 담당교수를 미리 알고 싶다. 1, 2학점 때문에 1년을 더 다니지 않도록 계절학기제를 두었으면 한다. 재수강의 기회를 B학점 이하로 했으면 한다. 학생 자신이 시간표를 짤 수 있으면 좋겠다” 등의 요구를 했다.

등교과와 연계할 필요, 교육방법을 탐구, 연구하는 방향으로 개선, 3, 4학년에도 교양과목의 개설” 등을 요구했다.

3) 교육학 과목에 대하여

교육학 과목에 대해서는 “교과교육에 비해 시수가 적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전임 교수가 적다. 학년, 학기별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3, 4학년에 편중되어 있다. 너무 이론적이다. 강의내용이 바뀌었으면 한다. 상투적 내용을 지양하고 실질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 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과목수, 학점수가 더 많아져야 한다. 특히 교육, 교직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교육학 과목이 증대되어야 한다.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공학을 필수과목으로 해야 한다. 비슷한 분야를 통합해서 교육학의 여러 분야를 이수했으면 한다. 강사선정에 신중했으면 한다. 심도있게 배웠으면 한다. 1, 2학년에도 배당해야 한다. 실제적이고 주변 현실의 사례를 많이 들었으면 한다. 방학 중에 교육학이 적용되는 실험학교를 운영했으면 한다.” 등을 요구했다.

4) 교과교육학 과목에 대하여

교과교육학 과목에 대해 “수업이 지루하다. 교수들의 연구가 부족하다. 진짜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질 낮은 교육을 받고 있다. 수업시간이 줄었으면 한다. 중심이 없다.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을 받고 있다. 해당교과의 목표, 특성을 아는 데 그친다. 교사용 지도서에 너무 의존한다. 지나치게 발표 위주로 수업이 진행된다. 실기과목으로 인해 학원비를 과다지출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교과교육 전공 교수의 강의가 필요하다.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했으면 한다. 실기과목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된다. 예체능과목을 모두 다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이수하게 하면 좋겠다.” 등을 요구했다.

5) 심화과정 과목에 대하여

심화과정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교과와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교육과 연관되지 않아도 괜찮다. 교과교육보다는 교양과목의 성격이 좋다. 학점수가 너무 많다. 학점

이 너무 크다. 충실히 이뤄지지 않는다. 한 교수님이 두 심화과정 담당은 별로다.” 등의 상충적인 불만을 나타냈고, “차라리 교재연구의 시간을 주었으면 한다. 교과전담제에 대비하여 학점수, 시간수를 늘렸으면 한다. 강사선정에 신중해야 한다. 타 심화과정에서 한 과목 정도는 이수했으면 한다.” 등을 요구했다.

6) 교육실습에 대하여

어느 4학년 학생은, ‘우리의 교육현실에 대한 교육사회학적 질문을 구성하라’는 보고서의 요구에 맞춰, 교육실습을 하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실습만 되면,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활을 한다. 물론 모든 학생이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이 그러하다고 믿는다. 특히 공개수업 주간에는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초췌해 보이는 모습도 눈에 띈다.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교육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은 모두 다 그 그들의 학점이 B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열심이다. <중략> 나는 (교육실습과 관련하여) ‘왜 교육실습에 1학점이라고 하는 비중 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학생들은 어느 과목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열심히 교육실습에 심혈을 기울이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이어서 그 학생은 교육실습시 학생들의 행위를 임용고시라는 제도, 실습생과 지도교사와의 관계, 타인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최고이기를 바라는 개인적 욕구 등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만일 우리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제주교대생들의 현실 인식을 사실로서 받아들인다면, 다음 두 가지 결론에 이른다. 첫째, 교육대학교 학생들에게 진리탐구라는 대학 본연의 이상, 예비교사로서의 충실한 준비 정신 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요인들로 말미암아 다만 감춰지고 개발되지 않았을 뿐이다. 둘째, 적

절한 조건만 주어진다면 교대생들도 얼마든지 학구적이고 교사로서의 준비를 성실히 수행할 것 같다. 다시말해 교대생들에게서 진리탐구라는 대학 본연의 이상, 예비교사로서의 충실한 준비 등을 찾기 어려운 까닭은 단지 학생들 자신의 현실적 가치관,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사회적 여건(상업적 대중문화, 임용고시에 따른 경쟁적 가치관, 개인주의의 만연 등) 때문만이 아니라, 교육대학교 내부의 교육여건 즉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상의 문제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교대생 문화로부터 벗어나 있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의식 변화를 직접 유도하는 일만이 아니라, 교육대학교의 교육여건 즉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서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2.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

다음에는 제주교대생들이 학생 자치조직(학생회·학회·동아리·학생자치 언론매체 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각종 자치활동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지각·해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어떤 반응들을 보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총학생회 사업에 대해

총학생회 및 그들 사업에 대한 제주교대생들의 해석은 총학생회 구성시 학생들의 참여, 학생들의 각종 집회나 사업 참석률, 총학생회 만족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1997학년도 총학 회장단 선거에서는 후보자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 선거공고가 두 차례나 유산되었다가 세 번째 선거공고에 따라 등록된 단독 후보에 대해 찬반을 묻는 형식으로 회장 선거가 치러졌다. 이만큼 총학 회장이라는 자리가 제주교대 학생들에게는 부담을 주고 있다.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 선거와는 다르다. 회장·부회장이 선출된 뒤, 집행부 임원을 구성하는 데도 나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4명의 간부만을 확보했다. 1997년 7월말 현재는 2명이 추가되어 회장, 부회장 포함 8명의 간부가 있으며, 총학의 집행력 강화 차원에서 각 과대표 1명씩으로 구성된 운영

위원들의 학생회 사무실 상근 방법을 모색 중이다.

봄 농활(제주지역 초등학교에서는 보리베기 방학을 하는 경우가 있음)(6월 5-7일) 이후, 총학 사업 및 총학 사무실 운영에 대한 학생들(특히 운영위원회, 동아리 연합회 및 자칭 교지편집위원회 등 학생 자치활동과 관련된 총학 집행부 밖의 다른 학생 자치조직)의 비협조적 태도 내지 무규범적 생활방식에 대해 학생회장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이후 대검찰청에서 한총련 미탈퇴시 총학생회 간부에 대한 구속 예고가 발표되었고(6월 10일), 학생회장은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히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공식 선언했다(6월 11일, 12일). 운영위원회는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6월 13일)하면서 그 자리에서 학생회장이 탈퇴 사유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학생회장은 정족수 미달인 '임시총회'(6월 19일) 자리에서 탈퇴 사유를 주로 학생들의 비협조를 들어 제시했다. 일반 학생들의 반성적 발언이 이어졌고, 동시에 학생들은 총학 내부조직의 개선 검토 및 총학 사업 협조를 약속하면서 다음 임시총회(6월 23일)에서 회장직 사퇴를 반복할 것을 요구했다. 정족수를 넘어선 다음 임시총회에서 한총련 탈퇴건이 먼저 안건으로 상정(대학 학생과에서 운영위원을 설득)되었고, 회장의 사퇴반복 발언과 향후 총학생회 사업에 대한 논의 및 한총련 탈퇴 결정을 위한 임시총회(만일 정족수 미달일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기로 함) 일정을 7월 7일로 확정했다. 임시총회 연기, 7월 15일 한총련 학교 개설, 이후 7월 22일의 임시총회가 정족수 미달(재적인원 430명중 170여명 참석)로 성사되지 않아 운영위원회에서는 각과 대표들로 구성된 가칭 '대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총련 탈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60 대 29로 탈퇴를 결정했다.

1997년 5월 말경 대학 자체평가의 일환으로 신입생 94명(남학생 22명, 여학생 72명) 대상으로 학생회 활동과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 <표 3>과 같이 만족 21.3%, 보통 44.7%, 그리고 불만족 3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보다는 불만족의 비율이 다소 높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신입생의 66%가 학생회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 학생회 활동과 운영에 대한 신입생들의 만족도 (%)

구분	아주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아주 불만족	계
남학생	3(13.6)	5(22.7)	8(36.4)	4(18.2)	2(9.1)	22(100.0)
여학생	2(2.8)	10(13.9)	34(47.2)	22(30.6)	4(5.6)	72(100.1)
계	5(5.3)	15(16.0)	42(44.7)	26(27.7)	6(6.4)	94(100.1)

2) 학과중심 축제('사라교육 한마당' 1997년 5월 7일 - 9일)에 대해

학과중심 축제인 '사라교육 한마당' 행사가 진행 중일 때 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나눠 보았다. 총학 주관의 교육과정 간담회 자리에서 만난 어느 1학년 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학교육과 것을 제외하곤 모든 학과의 축제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교육학과 것은 괜찮았다. 대학생활 2개월 정도 했는데 교육에 관한 생각이 별로 없었다. 교육학과 세미나를 통해 내가 (준비해야) 할 일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

이어서 이 여학생은 이전에 있었던 총학생회가 준비한 '새내기 새로 배움터'나 '신입생들만의 MT'에는 '집안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학교행사에 그 성격을 봐가며 참석하고, 가정에서 착한 큰 딸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때 야영을 좋아했다(많이 가봤다는 뜻으로 들림). (남들 가는데) 안 간다고해서 (내적으로)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사는데 아프시고,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시기에 집에서 할 일이 많다. 또 제사가 한달에 한 두 번은 꼭 있다. 고3 때는 나만 생각했다. 바로 밑의 여동생(이 여학생은 3녀 1남중 장녀임)이 많이 일했다. 이제껏 너무 무심했고 너무 이기적이었다. 이제는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겠다.”

동아리(미즈) 방에서 만난 어느 2학년 여학생은 학과제의 학술성 정도가 미흡하고 학과 전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12개 학과 프로그램 중 4개만 참석했다. 건방진 소리해도 되는가? 우리 학과같은 경우는 '학술제' 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과의 경우는 '학술제'라고 하기에는 모자라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모의수업도 많이 해서 재

미있고 좋긴한데, 집행부가 힘든 것도 아는데, 세미나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 좀 더 학술적이어야 한다. 학과제는 거의 3학년이 대부분 주도한다. 우리는 참석하는 정도에 그친다”

학생 식당에서 만난 모 심화과정의 3학년 여학생들은 자율적 삶의 영역(학과제, 교지발간 등)과 타율적 삶의 영역(수업)의 구분하고, 학생들의 자율적 삶에 대한 교수들의 관여는 적극적 간섭보다는 소극적 자문 정도가 좋다고 지적했다.

“3학년 대부분은 자기 과 행사 때문에 다른 과 행사에는 대체로 참석하지 못한다. 준비하느라 그렇고 끝나면 지쳐서 그렇고. 1, 2학년은 많이 참석하는 편이다. <중략> 수업은 우리가 한다기 보다는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 학술제는 한 번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한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밤 9시에도 모여 준비하고, 여러 날 밤샘을 했다. 중간고사(4월 24-26일) 전 3-4회 밤샘고, 중간고사 후 계속 준비해 왔다. 그러나 준비는 부족했다. <중략> 지도교수의 지적과 4학년 선배들의 조언으로 초점이 보다 확실해 졌다. 학술제는 교과내용과 관련되므로 지도교수의 전문적 자문이 매우 필요하다. 반면에 교지 발간에는 지도교수가 어른의 입장에서 지도가 아닌 자문 정도로 참여하는 게 좋겠다.”

3) 동아리에 대해

다음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앞에서 인용했던 1학년 여학생은 학생운동으로서 사회참여를 지향하는 동아리에 대해 거부감 보였고, 개인의 교양 함양을 위한 동아리를 선호했다.

“고등학교 때는 가톨릭 학생회 활동을 했다. 대학에 와서는 ‘참벌통’(교양 도서 독회 동아리)에 가입했다. ‘가생’이 운동권과 연결되어 있어, 그런데 참가하고 있어, 혼란스럽기도 하고 별로 관심이 없다. 가생활동을 안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 조기퇴진 집회 참가 권유

를 받았으나, 실효가 없다고 본다. 조기퇴진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제주교육대학교의 학생문화는 동아리 중심의 학생문화이며, 학년별로 학생 자치활동 양상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공강 시간은 거의 동아리 방을 이용한다. 비동아리 회원도 친구따라 온다. 우리 대학은 (학과보다) 동아리 위주로 가는 편이다. 친한 친구들이 같은 동아리에 많다. 동아리는 수가 적어 유대관계가 긴밀하다. 과는 수가 많고 과별 배구대회 정도에 모인다. 학과 집행부는 수가 많고 동아리는 더 적어 ‘목숨걸고 한다’. 동아리 활동기간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사봉축제(동아리 중심) 때까지다. 4학년은 ‘동방’에 별로 안오고 주로 도서관에 간다.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는 애들이나 fast food 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애들은 술자리에 참석 못한다. <중략> 교대에서 3학년은 ‘철인’이다. 학과나 동아리 집행부, 학원, 과외, 레포트, 발표, 교생 실습 등으로 제일 바쁜 학년이다.” (위 2학년 여학생).

4) 전체적으로

앞서 언급했던 1학년 여학생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교대생들에게서 개인주의적이고, 주체적인 성향을 볼 수 있다.

“수업 외에는 각자 행동한다. 자기가 원하면 참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다.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리 오라하면 이리 가고, 저리 오라하면 저리 가게 된다.”

3. 학생 개개인의 삶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

끝으로, 학생 개개인의 삶의 영역을 중심으로 교대생 문화의 현실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는 교우관계, 아르바이트, 학원수강, 진로문제, 임용고시 준비, 취미교

양 생활 등이 포함된다.

1) 교우관계

교육관계에 있어 끼리끼리 어울리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학과는 물론 동아리도 흔들릴 정도가 된다. 경제적 사정도 어울림의 조건이 되고 있다.

“고등학교 때는 싫어도 같이 있어 친해졌는데, 대학에 와서 보니 ‘끼리끼리’ 다닌다. 그러다보니 같은 반이라도 모른다. 이름도 모른다. 대학에서 알고 지내는 애들은 많지만 고등학교 때 친구랑 다르다. 학원가고 과외가고 서로 바쁘니까 같이 놀러가지도 않는다. 인사하는 정도다.” (위 1학년 여학생)

“우리 학교에서는 남학생 특히 군대갔다 오지 않은 1, 2학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 입학 당시 성적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나는 기회있을 때마다 후배 남학생들에게 말한다. 입학 때 성적이 다가 아니다. 열심히 해라.” (군대갔다온 4학년 복학생)

“우리 학교는 졸업여행을 단체로 가지 못한다. 단체여행을 찬반 투표해도 과반 수에 훨씬 못미친다. 뜻맞는 애들끼리 어울려 외국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다.” (4학년 복학생)

2)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는 교대생의 물질적 기반이 되며,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한다. 1997년 여름 방학에 320만원을 들여 유럽 배낭여행을 계획했던 여학생의 물질적 기반도 아르바이트에 있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인해 학생들의 모임 자체가 어려워지고 더욱 개별화하고 있다.

“아르바이트하느라 밤 9시에 모여 축제 준비를 했다.” (교육학과 여학생)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있어 운영위원회 회의를 일요일 저녁 7시로 잡았다.” (학생회장)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는 애들은 동아리 뒷풀이 술자리에도 참석 못한다. 나는 과외 1개를 한다. 주 3-4회 가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가르친다. 1회에 1시간 30분 가량한다. 월 20만원을 받는다. 1학년은 과외를 못구하는 편이다. 과외는 4학년도 한다. 용돈받기가 미안해서인 것 같다.” (위 2학년 여학생)

“어떤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기 위해 자동차를 구입했다. 기동력이 있어야 하니까. 결국 아르바이트로 돈 벌어서 졸업할 때 차 한 대 장만하고 나간다.” (학생과 직원)

3) 학원 수강

제주교대생들은 학원 수강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니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만으로 초등교사에 요구되는 기본 실기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대학교 신입생 선발방식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정규 교육과정 외에 방과 후 실기교육 프로그램을 실비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

“5월부터 아침에는 컴퓨터 학원에서 EDPS개론 공부를 한다. Word 시험을 보기 위해서다.” (위 1학년 여학생).

“오후에는 과외가야 하므로 새벽반에서 영어회화를 공부한다. 주 4회이고 1회에 1시간 30분 정도 한다. 안 쳤던 애들에게 피아노는 필수이다. 동요를 반주할 수 있을 정도(체르니 100번, 30번)면 안 가도 된다. 컴퓨터 다니는 애들도 많다. 미술 심화과정 학생이 미술학원에 다닌다. 미술을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못해서 간다.” (위 2학년 여학생).

“학원교육(서예, 수영, 그림, 피아노 등 예체능 과목)으로 학교생활이 쫓기고 있다.” (2학년 학생).

4) 진로, 휴학 문제

앞의 <표 2>와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대 신입생 중에는 뚜렷한 사명감을 갖고 입학한 경우가 많지 않다. 그만큼 교대생들은 입학 당시부터 진로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때는 자기 적성에 안 맞는게 있나 했는데, (제주교대에) 와 보니까 상당히 (적성이 안 맞는 애들이) 많더라. 다니는 애들 대부분도 ‘그냥 괜찮은 것 같다’ 이 정도이지, 열정적으로 ‘선생님이 되겠다’는 경우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의심스럽다. 우리 학교에 온 애들은 ‘교직’보다는 ‘안정된 직업’을 선호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건 저의 생각일 뿐이지만, 다른 대학 다니다 또는 졸업해서 우리 대학에 온 사람들도 사실 더 좋은 데 가려다가 안되니까, 취업이 잘 되니까 온 것이다. 정말 교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친구 중에 동국대 행정학과 다니다가 재수해서 우리 대학에 왔고, 또 삼수해서 원하는 대학에 간 아이가 있다. 친구는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고, (우리대학은) 작은 대학이니까 심심하고, 거의 집에서 보내서 왔으니까, 대부분 재수하려고 휴학한다. 휴학원에 쓴 휴학사유는 핑계이다.” (위 2학년 여학생)

“요즘 우리 대학도 일반 대학처럼 반드시 4년안에 졸업하기보다는 중간에 휴학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다 탄탄히 갖추어 취업에 대비하는 경향이 높아 가고 있다. 특히 예체능 실기 능력이 뒤진 애들의 경우, 한 일년 정도 휴학해서 보통 정도의 실기능력을 갖춘 다음에 실기에 신경쓰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계획을 갖기도 한다.” (4학년 복학생)

5) 임용고시 준비

임용고시는 교대생이 당연한 가장 현실적 과제이다. 따라서 교대생들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일종의 '생존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학교당국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지역에 응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임용고시 방법을 개선하며, 제주교육대학교 입학 정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고3 때처럼 열심히 하지는 않으나 되게 부담을 갖는다. 서울에 공부하러 가는 언니들도 있다더라. 4학년 언니 중 임용고시 안 보고 판 시험 보겠다고 했다가 이젠 임용고시 보겠다고더라. 남들 다 임용고시 준비하니까,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불을 밝혀 공부한다.” (위 2학년 여학생)

“경기지역을 알보고 공부 안했다가 경기도를 지원했던 14명 중 5명만이 합격했다. 오히려 제주지역(83명 지원 39명 합격) 보다 합격률이 낮다. 지금 4학년 학생들 중 적지 않은 아이들이 서울에 가서 학원 다니고 있는 것 같다. 노량진 언니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근처에서 부딪친 적이 있다.” (경기도에 임용고시를 보고 합격하여 발령 대기 중인 졸업생)

“임용고시는 외워야 한다더라. 3학년 때는 별 생각 없다. 어떤 과목,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잘 모른다. 교육학, 각과교육, 실기 시험이 있다는 정도 알고 있다. 4학년 때 되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면 될 것 같다.” (위 ○○학과 3학년 여학생들)

6) 취미교양 생활

제주교육대학교 학생들에게도 상업주의적 대중문화가 예외없이 침투해 있음을 보게 된다. 대학생다운 문화 형성을 위해 교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학교공부는 솔직히 시험기간 아니면 안한다. 예습, 복습은 물론 안한다. 공강 시간에는 원하는 책을 읽는다. 주로 소설책을 많이 본다. 1권 짜리도 읽고 태백산맥처럼 여러 권짜리도 읽는다. 여름방학 때 45일간 유럽 17개국 30개 도시를 배낭여행 할 계획이다. 우리 학교에서도 유럽에 2명, 호주에 1명이 배낭여행을 갔다 온 것으로 안다.” (위 2학년 여학생)

IV. 교대생 문화의 문제점과 지도방향

우리가 교대생을 올바른 방향에서 지도하려면, 교대생 문화의 현실이 이상적인 교대생 문화와 괴리될 수 밖에 없었던 몇 가지 원인을 검토하고, 교대생 문화 현실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해 나가면서 보다 합리적인 처방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대생이 바람직한 교대생으로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데는 교대생 개인의 문제, 학교의 문제 및 우리 사회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김신일, 1993 참조). 따라서 어느 한 가지만을 교대생 문제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학생지도에 임한다면, 자칫 교대생의 문제를 호도할 가능성이 있고, 올바른 방안을 모색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교대생 개개인은 누구나가 입학 당시부터 학문에 대한 열의나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한다. 이제껏 교육을 받아오면서 교육적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대생들은 자신을 가르쳤던 교사의 낮은 자질, 입시 위주의 경쟁적 교육체제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늘 남과 비교하여 상대적 우위만을 따지는 교육현실, 대학교육의 대중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교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외면해 왔던 비교육적 풍토 등으로 교육의 가치를 제대로 맛보지 못했다.

그러나 제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의 학과 단위의 축제 준비나 교육실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교육대학교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학문과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사로서의 삶을 진지하게 모색하려는 자세를 다소나마 키워 왔다. 따라서 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의 방향과 삶을 살아가는 자세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교대생 문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지도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대생 개인의 삶의 영역과 관련해서는 첫째, '끼리끼리'의 생활방식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배우고 가르치는 삶이 단지 몇몇 사람의 범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교육적 가치의 확산을 업으로 삼는 교

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둘째, 학교공부와 아르바이트 또는 학원공부가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많은 교대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원에 등록하여 공부하는 것은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에서이지, 결코 학교교육을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해서도 안 됨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교대생들이 앓고 있는 진로문제는 자신의 생활거주지역에서만 교직생활을 하려는 안정주의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살든지 어떻게 사느냐가 더욱 중요함을 강조 지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주교대의 경우, 대학의 입학 정원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넷째, 상업주의적 대중문화로 인해 학문의 가치, 교육적 삶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교대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문제점과 지도방향을 제시하겠다. 첫째, 이제껏 정치지향적 학생운동으로 말미암아 학생회 간부와 일반 학생들의 간격이 더욱 넓어졌고 학생회 간부 자신들도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있다. 학생운동의 방향이 다원화, 대중화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학생들의 문화적 욕구를 수용하고 학생복지 개선에 노력해 간다면 명실상부한 학생 자치활동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정치적 민주화가 보다 앞당겨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과에서는 보다 학술적인 주제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과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은 학과 교수의 적극적 자문을 받고, 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자문에 성실히 임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동아리 역시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자체의 본질적 특성을 살리기 보다는 우리의 정치현실 속에서 특정한 현실인식에 사로잡혀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동아리 본래의 취지를 살려 교대생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교대생은 학년별로 생활방식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교내 여러 행사에서 학년별 모임을 갖는 것도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듯 싶다.

끝으로, 교대생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공식적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해 학생지도 차원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지도는 학생과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교수 개개인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둘째, 아울러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방식 여하가 학생지도의 걸림돌이 되거나 디딤돌이 되기도 한

다. 따라서 올바른 방향에서 이상적인 교대생 문화를 형성하려면 교육과정 편성이나 운영에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교육법.

김민호(1995). 교사. 김신일 외. 시민의 교육학. 서울: 한길사, 121-156.

김신일(1993). 교육사회학(개정증보). 서울:교육과학사.

박남기(1997). 미래교사의 눈에 비친 초등교원 양성 교육의 현주소. 서울:교육과학사.

박용현(1992). 학교사회. 서울:배영사.

장상호(1994). 또 하나의 교육관. 이성진(편). 한국교육학의 맥. 서울:나남출판, 291-325.

제주교육대학교 연보. 1993 ~ 1997.

제주교육대학교 요람. 1997 ~ 1998.